

평론가 100% vs 관객 89%, 왜?

〈신선도〉

〈팝콘지수〉

미국 '로튼 토마토', 영화·드라마 등 평가 영화 '모가디슈' 팝콘지수 97%엔 못 미쳐 높은 점수불구 시청자 '호불호'는 있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류승완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신선도 지수 100%'이다. 여기에 '팝콘 지수'도 따라 붙는데, 23일 현재 '오징어게임'은 89%, '모가디슈'는 '97%'이다. 그렇다면 대체 '신선도 지수'와 '팝콘 지수'는 무엇일까.

'썩은 토마토'라는 뜻의 'Rotten Tomatoes(로튼 토마토)'라는 이름을 내건 미국의 한 사이트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대상으로 평론가(신선도)와 관객(시청자·팝콘)의 평가와 평점을 종합해 내놓는 지수이다. 언젠가부터 한국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해외의 평가를 수치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또 하나의 잣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선하고, 썩은, 토마토의 의미

로튼 토마토는 낮은 완성도의 연극 무대에 관객이 토마토를 던졌던 관행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Fresh(신선함)'와 'Rotten(썩음)' 토마토를 기준으로 평론가 평가 위주의 지수(Tomatometer·토마토미터)를 부여하고 있다.

최소 5명 이상의 평론가 평가와 이를 지수화한 평점의 'Fresh' 비율이 60% 이상인 작품에는 잘 익어 신선해 보이는 빨간 토마토 모양을, 60% 미만의 경우 썩은 토마토를 벽에 던져 퍼져버린 모양의 녹색 상자를 붙여준다. '팝콘 지수'도 관객의 호평과 혹평의 비율 기준을 60%에

둔다. 60%가 넘으면 팝콘이 빨간색 틴(케이스)에 가득 담긴 모습을, 그렇지 않으면 녹색 틴이 쓰러져 팝콘이 새어 나오는 로고를 각각 붙인다. 따라서 '오징어게임'과 '모가디슈'는 평론가와 관객(시청자)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공인받은 셈이다.

●지수에는 늘 '함정'이 있다

다만 로튼 토마토 지수는 각 작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수가 60%라면 나머지 40%는 호평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혹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를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적 식견을 지닌 평론가라 하더라도 호불호의 취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Fresh'보다 더 높은, '신선도 지수 75% 이상, 최소 5명에서 최대 80명 이상의 리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신선도 보증(Certified Fresh)' 표시와, 지수 아래 표시된 10점 만점의 '평균 점수(Average rating)'를 확인해보면 좀 더 세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윤여정에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화 '미나리'의 경우 307명의 평론가가 참여해 '신선도 지수 98%'에 평균 8.70점을 주었다. 'Certified Fresh' 인증도 물론 받았다.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정보를 모은 세계 최대 규모 사이트 IMDB(Internet Movie Database)의 평점이 더해지기도 한다. 로튼 토마토와 달리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수백만 관객과 시청자 등 영상 콘텐츠 소비자의 평점(10점 만점)을 위주로 한다. 평론가 코너의 리뷰는 이에 더해 좀 더 다면적 시각을 제공한다.

참고로 '오징어게임'의 IMDB 평점은 22일 현재 8.6점, '모가디슈'는 7.5점이다. 두 편 모두 관객과 이용자들에게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큰 사진) 등 추억에 남은 놀이를 소재로 시청자를 '지옥'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 비평사이트 로튼 토마토는 이에 '신선도 지수 100%'의 평점을 주었고, 영화 '모가디슈'도 같은 지수를 얻었다. (왼쪽 아래 작은 사진 왼쪽부터)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

추석 직전 출산...12세 연하와 재혼 1년만에 경사



김구라

방송인 김구라(김현동·51)가 늦둥이 아빠가 됐다.

23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구라의 부인이 추석 직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김구라의 부인은 현재 경기도 일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으며, 아이는 예정보다 이르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성별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구라는 지난해 12살 연하 A씨와 재혼한 지 1년 만에 둘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됐다. 그는 첫 부인과 결혼 18년 만인 2015년 이혼한 뒤 지난해 A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밝혔다. 이후 결혼식을 생각하고 혼인신고하며 조용히 가정을 꾸렸다. 첫째 아들은 가수 그리(김동현·23)이다. 김구라와 그녀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A씨에 대해 "가족으로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구라의 늦둥이 소식에 박명수와 지상렬 등 절친한 개그맨 동료들은 SNS와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축하 인사를 보냈다.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구라는 인터넷 방송 등을 거쳐 예능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해 왔다. MBC '라디오스타' '아무튼 출연!',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 출연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26일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참여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 빌리 아일리시, 콜드플레이, 제니퍼 로페즈, 에드 시런, 엘튼 존, 도자켓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프랑스, 나이지리아,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콘서트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에 참여한다. 23일 미국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기후변화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균등 분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무대이다. 콘서트는 '글로벌 시티즌' 공식 유튜브와 트위터, 영국 BBC ONE, 미국 ABC 등이 생중계한다.

마약 투여 혐의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재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과 비아이는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14개 구·군에 스크린 설치

10월6일 막을 올리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광역시의 14개 구·군에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한다. 23일 부산국제영화제는 "축제를 부산 전역에서 펼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동네방네비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영화제 주요 행사 공간인 부산 중구 남포동과 해운대구 외에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등 14개 지역에 스크린을 설치해 프로그래머 추천작을 상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연극으로 중국대륙 누빈다

내년 초부터 상연...하오레이 등 스타 캐스팅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번에는 중국으로 향한다. 내년 초 중국에서 상연하는 연극작품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해외 진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코비즈(KOBIZ)'에 따르면 '기생충'이 2022년 1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대에 오르는 연극으로 만들어진다. 코비즈는 "무대 경험이 풍부한 배우 하오레이(학번)가 캐스팅됐다"면서 "(그)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오레이는 2006년 로에 감독의 '여름궁전'으로 한국에도 알려진 배우이다. 가수로도 활동해온 그는 2014년 영화 '네 번째 초상화'로 중국어권의 대표적인 영화상인 금마장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또 다양한 연극에

도 출연해왔다.

'기생충'의 연극화는 제일교포 영화 제작자인 이봉우 맨시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제작하는 일본연극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 일본판 연극은 2023년 막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중국 무대가 더 먼저 관객을 만날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은 일본연극 리메이크 소식이 알려진 올해 초 "영화보다 희곡을 먼저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3년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라는 '기생충'의 굵은 줄기를 떠올리며 연극무대로 먼저 만드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춘예찬', '햄릿' 등을 연출하며 한국연극을 대표해온 박근형 연출가를 만난 적도 있다. 봉 감독의 이 같은 경험이 국내에서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대 위에 구현될지 궁



영화 '기생충'

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작품상·감독상 등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은 미국드라마의 '명가' HBO가 만드는 드라마로도 선보인다. 영화 리메이크가 아닌, 원작 속 설정과 인물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스피노프 로 알려졌다.

'기생충'은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수작이 인접 장르와 매체를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로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윤여수 기자

'4세대' 케이팝 아이돌, 글로벌 성장세 대단하네

NCT 127·스트레이 키즈·TXT 등 선두주자 코로나 유행에도 앨범 판매량·팬덤 등 확장

케이(K)팝 후발 주자들이 대활약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등 세계 팝음악 시장을 평정한 월드스타들에 이어 NCT 127,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이른바 '4세대'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막강한 파워를 뽐내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앨범 판매량과 팬덤을 확장하는 등 국내 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려가는 중이다.

NCT 127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최근 발표한 정규 3집 '스티커'(Sticker)로 음반시장의 새로운 최강자로 떠올랐다. 2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티커'는

선 주문량 212만장을 기록했다. 전작 '엔시티 #127 네오존'의 최고 수치(53만장)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특히 방탄소년단에 이어 단일 앨범으로 200만장의 선 주문량을 기록한 케이팝 그룹의 위상을 자랑한다. NCT 127은 NCT 유닛으로 2016년 데뷔해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들은 히트곡 메이커이자 유명 프로듀서인 유영진이 수록곡을 작사·작곡·편곡한 앨범을 내놓고 더욱 폭넓은 대중성을 노리며 아이돌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SNL 코리아'에도 출연한다. 이제껏 보여준 적 없는 코믹 연기와 새로운 매력으로 특정 팬덤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스트레이 키즈도 최근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2집 '노이즈'(NOEASY)가 누적 출고량 110만장을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소속



NCT 127

스트레이 키즈

TXT

사 JYP엔터테인먼트의 앨범으로는 첫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또 한 팀의 유력한 스타로 떠올랐다. 2018년 데뷔한 이후 최고 성적이란 점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선전도 돋보인다.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동란'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형제그룹'답게 님은꼴 행보로 눈길을 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선보인 리패키지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5위에 오른 뒤 8위→26위→76위 등 순위를 오르내리며 장기간 차트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아이돌 그룹이 이 차트에서 11주 이상 머무른 것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